

감정의 골 깊어진 조계종·선학원

종단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조계종과 선학원의 감정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선학원은 이 사진과 감사 전원의 제작원이라는 강수를 뒀고, 조계종은 비판 성명서와 호법부 등원이라는 맞불을 냈다.

선학원 이사회는 6월 30일 조계종 총무부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13명의 제작원을 제출했다. 제작원 제출 사유는 “조계종의 중현 중법에 동의할 수 없음”으로 기재됐다.

제출 직후 선학원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제작원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은 성명서에서 “조계종은 2002년 합의사항이 파기됨에 따라 정관을 이사회 결의에 의거 합의 이전 정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내놨다.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3일 진제 스님을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정만 스님이 선학원 문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진제 스님은 “중현 중법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제작원 제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정 스님의 시중은 오는 7월 10일 원로회의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혜사와 간월암을 놓고 선학원과 갈등 중인 덕숭총림 수덕사는 이사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학원 이사진들이 6월 30일 조계종 총무부에 제작원을 제출하고 있다.

선학원

임원진 제작원 제출
정관 복원 불가 통보

조계종

“법인 사유화 의도”
제작원 처리 보류
호법부 등원 공고해

이와 함께 선학원은 조계종의 정관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2002년 합의사항이 파기됨에 따라 정관을 이사회 결의에 의거 합의 이전 정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에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이 법인법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정만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선학원 이사회가 중현 중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중지 중법을 봉쇄할 수 없다면 그들이 떠나야 선학원을 탈퇴시키려 한다”고 힘섰다.

조계종 총무부는 선학원 임원이 제출한 제작원은 현재 처리를 보류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계종 중현 중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호법부 조사를 의뢰했다. 호법부는 7월 3일 제작원을 제출한 전원에게 ‘1차 등원통지서’를 발송했다.

갈등이 극단으로 가는 상황을 보이자 종정 진제 스님의 시중 발표도 전망되고 있다. 총무부장 정만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는 7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인 관리 및 지원법제정은 역대 선사들이 설립한 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삼보정재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이사진의 제작원 제출은 법인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몰염치한 탐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대처위는 조계종단에 △중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선학원 이사진 전원을 중현·중법에 의거해 엄단할 것과 △조계종의 중지중통을 봉쇄하는 다수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t0179@hyunbul.com

‘현대불교’ 지령 1000호... ‘천불결사’ 다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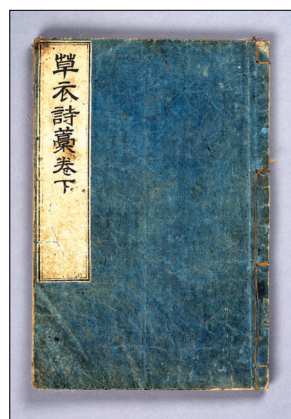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천불모시고 천불전 짓네

현대불교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한 후 20년만이다. 작가는 개인의 깨달음에서부터 크기는 사부대중의 염원인 정토구원을 위해 한 호 한 호 부처님 말씀을 담아왔다. 불법이 담겼으니 한 호 한 호가 불탑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은 불사일 것이다. 사진은 1813년 초의선사의 스승이었던 안호대사가 건넨 대홍사 천불전에 모신 천불이다. 천불전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이나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는 의미의 전각이다. 이제 현대불교신문이 천불을 모시고 천불전 한 채를 짓는다. 글·사진=박재환 기자

“‘초의시고’ 초의生前에 제작”

박동춘 소장, ‘초의시고 下’ 공개... “1851년 출고 추정”

그동안 ‘일지암 시고’
입적 후 발간으로 알려졌으나
하권 발견 제작연대 상향
10월 10일까지 ‘다산’ 전시 공개



후학들이 시를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초의시고 하권에는 1851년 윤치호의 시문 발문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초의 스님이 발문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동춘 소장은 “이번에 발견된 초

의시고는 일지암시고를 제작할 때 함께 만든 부장본”이라며 “여기에 있는 발문을 미뤄볼 때 초의선사 생전인 1851년에 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초의시고>는 부장본으로 초의선사가 각 시에 남긴 주석 등이 있어 더 가치가 높다. <초의시고> 본문에는 초의 스님의 차에 대한 사상을 비롯해 정약용, 김정희 등 당대 유명인사와 주고 받은 시문이 수록됐다. 박동춘 소장은 “영인본보다 형태가 분명하며, ‘유금강산기’ 등에는 초의 스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남긴 주석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배지의 제자들-다산학단’ 특별전은 남양주 실학박물관에서 10월 10일까지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지령 1천호 특집- 48면 발행

A 종합·불자들·지역	2·3·4·18
대담·향적 스님에게 듣는 선시 이야기	5
특집·결사, 세상을 바꾸는 힘	6·7·8·9
특집·한국 속 세계불교	13·14
‘현대불교’가 걸어온 길	10
지령 1000호 축하 메시지	12

B 특집·길을 묻는 이에게	1~8
C 특집·아생여당 템플스테이	1~8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령 1000호를 맞았습니다. 성원해주신 독자 제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편집중국 사정으로 이번호부터 발행일이 매주 목요일로 변경됩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총회의장	향적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